

국민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기업으로

대림산업(주)

2003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해가 될 것이다.

원자력 공사 발주 사상 최대 규모인 4기 원자력 주설비 공사가 지난해 12월 발주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해 12월 4일 총 2조원 규모의 신고리 및 신월성 1·2 호기 주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했다.

2000년에 확정된 정부의 「제5차 장기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1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 그 중 영광 원자력 5·6 호기, 울진 원자력 5·6 호기 등 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준공되었거나 건설중이며, 남은 8기의 원자력발전소 발주 물량 중 4기가 이번 해에 나온 것이다.

우리 대림산업(주)는 영광 원자력 5·6 호기 공사 경험과 축적된 기술 능력, 그리고 우수한 경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여 국가 에너지 자립

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여 왔다.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통한 한계 사업 정리, Risk Management를 통한 수익성 위주의 이익 중시 경영으로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60년 역사의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높은 건설업체의 선두주자로 새로운 시대 신규 원전 건설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당사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이다.

성공적인 원자력 공사 수행

2002년 5월 21일 본격 상업 가동에 들어간 영광 원자력 5 호기는 100만kw급의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족 이후 최초로 준공된 국내 17 번째 원전이며, 1993년 7월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어 1996년 9월 기초 굴착 공사에 착수, 공사 6년만에 준공

을 본 환경 친화형 발전소이다.

영광 원자력 6호기는 2002년 7월 말 운영 허가를 취득해 원전 연료를 장전, 본격적인 시운전에 돌입했다.

고온 기능 시험, 출력 상승 시험, 인수 성능 시험 등 약 5개월 동안 시운전을 수행하여 원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인한 뒤 지난 12월 24일 상업 운전을 시작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시험 가동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시킨 것으로 현장 시공 및 품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 결과라 하겠다.

1995년 8월 영광 원자력 5·6 호기를 수주, 신규 업체로 참여하여 우리가 가진 지식·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대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경제적이고 안전성 있는 원전 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PC Inter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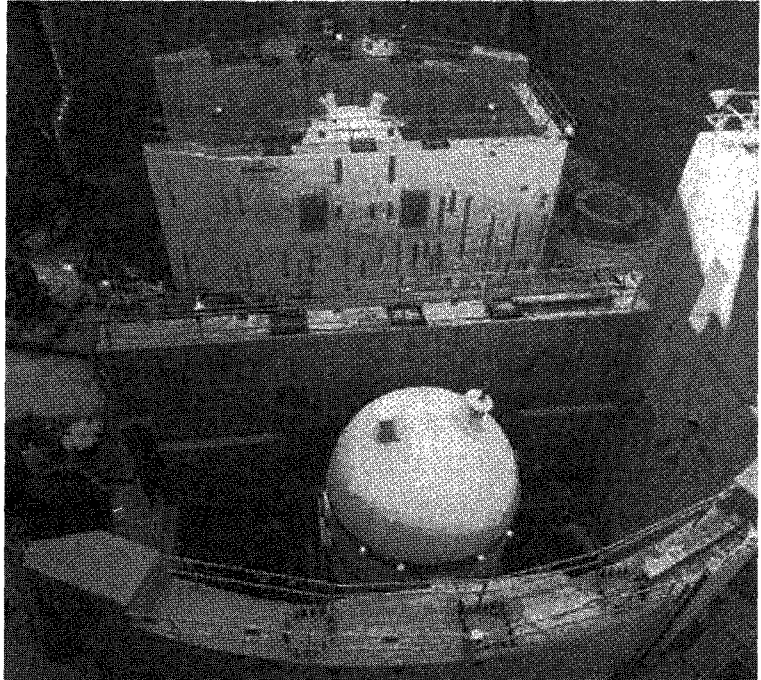
업무 성과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Task-Force Team이 구성되어 현행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하여 플랜트 부문 신교육 체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올해부터 실시할 신교육 체계에서는 플랜트 부분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EPC Integration 과정을 신설하여 플랜트 이해, 플랜트 수행, 플랜트 관리 등 세부 과정을 두어 과정별로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Engineering · Procurement · Construction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roject Management 교육 강화, 핵심 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21세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 (Infrastructure)를 구축할 것이다.

신설된 원자력 공사 과정에서는 영광 원자력 5·6 호기의 건설 경험, 원자력 공사의 기술적 사항 및 관련 Code 등을 전 직원을 상대로 전파하여 원자력 공사를 위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 유지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당사는 원전 건설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



대림산업(주)는 영광 원자력 5·6 호기 공사 경험과 축적된 기술 능력, 그리고 우수한 경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여 국가 에너지 자립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여 왔다.

보해 나갈 것이다.

공개 경영

시대적 여건 변화와 사회적 의식 변화 등 기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기업 경영에도 근본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구시대의 경영 방식이나 관행을 용납치 않으며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인 사고와 개혁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마음 자세의 전환을 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IMF 체제 이후 과거의 비효율적인 온갖 불합리한 관행과 구습을 척결하는 개혁의 새바람이 불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사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최고 경영층부터 솔선수범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주창하여 전 하부 조직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행동 원칙'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공개 경영'이

다.

‘공개 경영’ 이란, 첫째,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다.

비능률적인 업무 절차와 형식에 얽매인 권위주의를 타파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상하간의 자유스럽고 편안한 대화를 통하여 적의의 의사 결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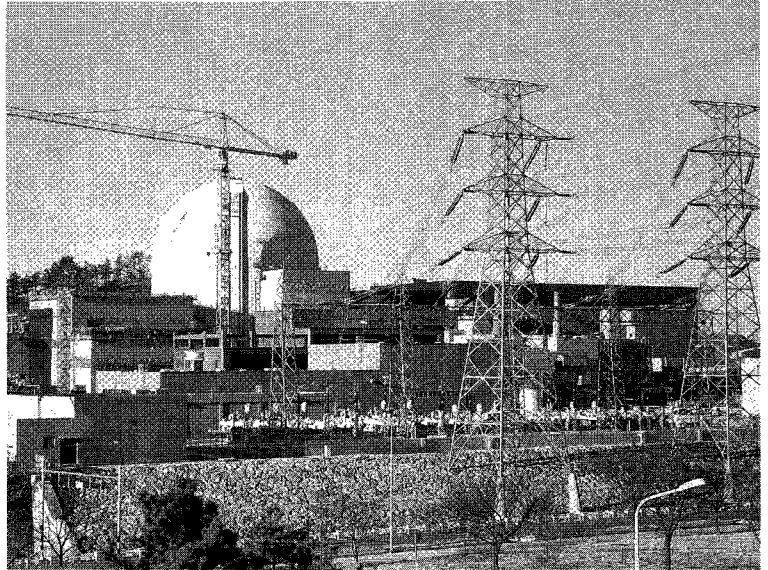
둘째,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정신 자세를 타파하는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하기 보다 인적·물적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구시대적 정신을 타파하여,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전략적으로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정도의 경영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상식과 원칙에 준하는 기업 활동으로 ‘정도의 경영’ 을 추구하며, ‘경영의 투명성’ 을 제고하여 대외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비생산적 대립을 지양하여 번영과 공존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사는 이러한 ‘공개 경영의 원칙’ 하에 우리의 실천적 행동 기준인 ‘한술정신’ 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 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더욱 더 매진할 것이다.



대림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고, 광대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는 그룹 이념을 더욱 다듬어 가꾸어 나감으로써 21세기의 초일류 기업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기업으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갈 것이다.

맺음말

그 동안 대림은 우리 민족사와 그 맥을 같이 해오면서 자본과 기술이 빈약했던 건국 초기부터 도로·항만·발전소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건설과 비료·석유화학·철강 등 국가 기간 산업 건설에 참여하여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어 왔으며 국민 생활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외형적인 성장 못지않게 근면의 땀과 성실한 노력으로 당당한 경영의 정도를 걸어 오늘의 금자탑을 이룩하였다는 데 대하여 큰 보람과 자

부심을 갖고, 창업 이래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하고 고객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신용을 지켜왔으며 남보다 한발 앞선 창의적인 개혁 정신을 발휘하여 오늘날의 든든한 기업 문화를 가꾸어 왔다.

앞으로도 대림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고, 광대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는 그룹 이념을 더욱 다듬어 가꾸어 나감으로써 21세기의 초일류 기업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기업으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갈 것이다.

